

# 눈에 보이는 만큼만 앞으로 나아가라, 그 곳에 이르면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민 다 애

- 원곡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재학 중
- 2019년도 5급 공채 교육행정직 합격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9년 교육행정직렬 합격생 민다애입니다. 제가 수험생활동안 많은 분들의 수기를 통해서 막연함을 해소하고 의지를 되새겼던 것처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의 시행착오를 담은 수기를 통해 공직을 향한 마음을 재정비하고 자신의 방식을 찾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 II. 전반적인 학습전략

학습 방법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저의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는, 정리되지 않으면 이해도 암기도 되지 않는 성향을 고려해 나름대로의 학습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의 성향을 고려해 전략을 수립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첫째로,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공부 위치를 재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학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험 당일부터 지금까지 역진적으로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설계하고 계획

을 세우는 것이, 게을러지는 저를 점검하고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작은 모눈노트나 워드프로세서의 표를 이용해 ‘피아노학원 방식’으로 매일의 학습 성취를 체크함으로써, 작은 성취감들을 모아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저는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터디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루틴을 만들어 돕으로써 약한 의지를 다잡는 한편,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매우 적어지는 시기에, 좋은 사람들과 만나 공직에 대한 열망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2019년에는 수험기간이 길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수험생활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을 극복하고 보다 성실하게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맥락과 논리가 잘 맞물려야 이해도 암기도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나 단권화를 통해 제가 이해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서브노트만 보고도 답안을 바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답안 중심으로 편제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답안을 위한 목차를 계속 재구성하는 연습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효율성 측면에서 이 공부 방식은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힌 내용을 저의 이해방식에 맞게 정리하고, 그것을 반

복해서 다듬는 과정은 장기적으로 각 과목의 틀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 Ⅲ. 1차 공부방법

저는 흔히 말하는 PSAT형 인간은 아니었고, 늘 아슬아슬한 1차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력 대비 운 좋게 늘 합격선 위에 놓인 탓에 안일하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2018년 1차 불합격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시험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목별 전략을 세우고 접근방식을 정리해 반복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한편 저는 1차 시험이 요구하는 것이 ‘사고방식’이라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마트에 가서 용량과 가격이 다른 동일한 제품을 보고 자연스럽게 비율을 이용해 단가를 암산 비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능력과는 달리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행정고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사고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치화되어 측정 가능한 목표(풀어야 할 문제 개수, 정답률 등)를 계획하고 그것대로 수행하는 것, 오답정리와 반복을 통해 특정한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1. 헌법

헌법 과목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헌법 난도와, 시험장에서의 심리적 압박을 고려할 때 부족함 없이 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 구조

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행정법과 달리 헌법은 문장의 진위판별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의 경우 어설픈 논리를 만들어 헛갈리기보다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암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금동흠 강사님의 12월 수업을 기반으로 강사님들의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면서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장기기억에까지 잘 남는 편인지라, 통치구조 부분은 컴퓨터를 이용해 매트릭스나 구조도로 정리해두고 인쇄하여 반복해서 점검했습니다. 더불어 헌법 조문집을 바탕으로 난해하거나 자주 헛갈리던 부분을 단권화 해 두고 반복해서 보았는데, 헌법 및 그 부속조문 위주로 출제되었던 2019년 시험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헌법은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각 문장의 빠르고 정확한 진위판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재와 강사님들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오답들을 문장 형태로 추려 반복해서 본 것이 유익했습니다. 하룻길이나 식사시간, 자기 전 등 자투리 시간에 했던 알파로(헌법 OX퀴즈)어플은 공부를 한다는 부담감 없이 게임처럼 진행되면서도 자신의 취약점에 맞게 반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2. 언어논리

언어논리 과목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독해습관에 의해 점수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언어논리 점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 과목 중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으며, 독해의 실전감을 잊지 않기 위해 기출문제를 반복해 푸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실전에서 논리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점수를 올리기 위해 6문제 전부를 풀기보다 확실한 4문제를 푸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논리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방식을 구축하는 편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기호화가 저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고, 이에 주로 밴 다이어그램과 매트릭스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고르는 과정에서도 저의 전략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고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적합한 방식을 찾는 것이 제게는 논리 문제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 3. 자료해석

자료해석 과목은 요령을 습득함으로써 가장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고, 초반에 1차 공부기간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 2019년도에는 전략적으로 방어과목으로 삼았습니다. 강사 실전모의고사와 기출분석에 주로 초점을 두되, 학습 과정 뿐 아니라 실전에서도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편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수로 인해 오답이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고 나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컨대

표의 분류 방식 내지는 단위 등을 이유로 틀리지 않기 위해 문제풀이 전에 가로축과 세로축의 분류 및 단위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치계산보다는 표/그래프 분석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방식으로 점수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 4. 상황판단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판단 과목에서 2018년에 점수 급락을 경험하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저는 2018년의 패인을 기본적인 장치를 놓친 것과, 실전이라는 부담감에 종래와 다른 전략을 취한 것이라는 두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부 방법을 통해 2019년 실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장치 찾기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실전 형태의 모의고사를 반복해 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준범 강사님의 실전 모의고사 2개년분과 기출문제를 번갈아 풀면서 강의를 통해 만들어 두었던 전략을 체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틀린 문제를 틀린 이유별/유형별로 정리해 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황판단영역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전에 오답노트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각 유형별로 놓치기 쉬운 장치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주어진 전략대로 풀어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출문제의 경향을 바탕으로 문제 유형을 고려한 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 1-3-4-2의 방식을 따르되, 각 부분에서 첫 번째에 풀지 않고 2번째 턴으로 넘길 문제의 개수와 각 부분을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정형화된 틀 아래에서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이는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풀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저의 성향과 문제의 난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시간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IV. 2차 공부방법

저는 2차 시험이 시험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학문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답안을 완성한다는 생각보다는 이 공부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학업 측면에서 답안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략적으로는 2차 과목 역시 시험 전 날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스스로 이해한 방식대로 적어둬으로써, 시험상황에서 이를 떠올리는 데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서브노트나 단권화 교재 형태로 제작한 이 자료들은 시험 직전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자료 정리 과정 속에서도 보다 논리적인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기 시험에서 답안을 완성하지 못한 경험이 누적되어 자

신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 답안을 완성하는 연습은 성공경험을 축적할 좋은 방법이 되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큰 당혹감 없이 '연습했던 대로' 반복함으로써 시험의 긴장감을 줄일 수 있었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후회 없이 현출할 수 있었습니다.

## 1. 경제학

저는 수험기간 내내 경제학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치계산에 약하고 계산실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 번째 시험에서는 경제학 과목에서 과락이 나오기도 했고, 19년에도 다른 합격생들의 점수를 고려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산을 실수하는 오랜 습관을 단기간에 고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대신 방어적으로 계산은 꼼꼼하게 여러 번 검산하는 한편 문제의 함의를 구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보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황중후 선생님의 순환강의를 따라갔고, 연습책 스테디와 기출문제 스테디를 병행했습니다. 한편 윤지훈 선생님의 미시, 거시경제학 120제와 국제경제학 2순환을 수강하면서 문제 개수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취가 낮은 과목인지라 공부 의욕도 낮았기 때문에, 스테디를 통해 자기구속제약을 만들어 줌으로써 최소한의 공부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 2. 행정법

행정법은 초반에는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한

번 법학적 시각을 갖고 나면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이나 판례를 풍부하게 알고 잘 암기하는 것 이외에도, 그 쟁점이나 주제가 가진 행정법적 맥락과 실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학습 효율성과 학습 동기 모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의에 병행하여 답안 형식으로 만든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핸드북 등 시중의 암기자료가 가진 줄글형, 교과서 스타일 편제가 저의 암기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브노트는 2016년 박도원 선생님의 (출간 전) 암기장을 중심으로 하여, 답안작성을 위한 목차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쟁점 중심으로 만들었던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답안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 교과서를 보면서 서브노트에 논점이나 흐름을 보강하고, 어색함이 느껴지면 논리를 재정비해 해당 쟁점의 목차를 다시 만들기도 하면서 저에게 맞는 답안작성 목차를 찾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이 가진 논리적인 맥락을 나름대로 구축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과목에 비해 행정법은 교과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3순환 기간에도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답안 작성시 막히는 부분들은 교과서를 통해 확인하고, 이렇게 익힌 논리적 맥락이나 표현, 근거 등을 발췌해 서브노트에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이는 강사님들의 강의만으로는 다소 파편화될 수 있는 비어있는 흐름을 채워주었을 뿐

아니라 답안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답안작성 분량 측면의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답안 연습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50점~200점 분량을 꾸준히 작성하고, 작성 이후 최고목차 작성을 통해 한 번 더 복습함으로써 답안의 논리를 완전히 체득하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스터디를 통해 답안 연습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좋은 표현이나 구성, 형식적 가독성 등을 개선하려 노력한 것이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의 지나친 암기의 부담에서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행정법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판례 암기는 통문장을 그대로 암기하기보다 판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번호를 붙이고 구조화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박도원 선생님식 방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실전에서도 판례 전체 문장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논리적 전개에 집중하되 판례의 키워드를 살리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74점대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암기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갖기보다는 논리적 전개에 힘쓰는 방식으로 답안작성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 행정학

행정학 역시 행정법 서브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 중심의 서브노트를 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경효 선생님 수업 필기를 문서화하고, 3순환 수업에서 제공해주는 논문자료들을 요약해 해당 쟁점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

행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학교 교수님 모의고사에서 다룬 자료들과, 타 강사님들의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한 교차스터디를 통해 배운 것들을 포함하여 한 권으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고시반에서 진행한 교수님 모의고사와 강평은 최근의 중요한 주제를 행정학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1차 시험에 떨어졌던 2018년에 학교에서 청강했던 김근세 교수님의 행정학개론 수업은 수험생으로서 간과하기 쉬운 패러다임 기반의 행정학적 안목을 기를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시의성이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활용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3순환 기간부터 꾸준히 모의고사를 작성하고, 자주 쓰게 되는 사례들을 미리 정리해 둔 뒤 현출하는 연습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행정학은 '묻는 것에 제대로 대답하는' 것과 '논리적인 흐름'이 고득점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답안 작성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익힐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4. 교육학 및 교육심리학

교육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학습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도 적은 편입니다. 다만 이론은 주로 임용고시 강의를, 교육정책 부분은 스터디를 통해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 역시 이러한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복학 시기에 학교에서 수강한 전공수업들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상훈 교수님의 교육행정학 수업과 한선영 교수님의 수학교육론 수업은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시야를 길러주었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교육학의 기틀이나 안목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론 부분은 주로 임용고시 강의 중 권지수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5급 공채의 1순환격인 3~4월 강의를 주로 들었고, 부교재로 제공되는 '핵심톡톡'에 단권화를 하되 행정고시의 맥락과 맞지 않는 이론들(크게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세부적인 교수방법이론 등)은 배제해가면서 중요한 큰 줄기를 중심으로 학습했습니다. 권지수 강사님이 해 주신 이론의 경중 판단 및 선별은 이론 학습 분량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다만 임용고시에서 기출제된 주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다루시기 때문에 임용고시에 기출되었던 이론들은 추가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육심리학 역시 권지수 강사님의 교육심리학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부를 위해 주제별로 A5 독서카드에 요약한 뒤 교과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단권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정책 부분은 매년 스테디를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 초부터 약 10주정도 3~5인으로 구성된 스테디를 만들어 정책을 발제하는 형태로 스테디를 진행했고, 널리 알려진 '배경-현황-개념-주요정책-문제점-개선방안'의 포맷으로 정부 보도자료, KEDI 단행본, 행복한 교육 등의 내용을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19년에는 정책 스테디에 병행하여

이렇게 정리한 정책을 다시 주제별로 재분류한 서브노트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기출 분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답안이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체득해둔 뒤, 이를 반영해 서브노트를 제작함으로써 답안에 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가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작성 스테디는 실전에서의 답안 완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초반 시험에서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답안에 현출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 2019년에는 정치학 3순환 기간에 맞추어 직접 10여회의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문제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주제의 핵심 내용을 포착하고, 이론과 연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었습니다. 한편 반복적인 답안작성을 통해서 실전의 부담감을 줄이는 한편 최근 교육혁신의 경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기를 수도 있었습니다. 답안작성 스테디는 교육행정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형태의 스테디는 아니지만, 실전에서는 결국 아는 것을 '답안의 형태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추천할 만한 공부법이라 생각합니다.

교육학과 교육심리학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더더욱 '의미를 찾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정책 현황을 잘 익히는 것을 넘어, 그 정책이 가지고 오는 교육 사회의 변화와 그것이 내포한 의미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스테디에서 단순히 정책을 공유하는 것 이외에도 교육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답안에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교육학 과목 득점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공직 동기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V. 나가며

저는 2015년에는 독학으로, 2016년에는 신입동에서, 2017년부터 2019년 봄까지는 학교 고시반에서 생활하는 평균보다 긴 수험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느리게 천천히 채워나간 20대의 4년 반의 시간은 배움의 기쁨과 공직에 대한 열망, 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소중함을 반복해 되새기는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 공직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되리라 봅니다. 긴 시간동안 제가 걷는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두 동생과 몽

이,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던 스터디원들과 고시생 친구들, 그리고 애정관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험의 막연함 때문에 저 역시 오랜 시간동안 헤매고 방황해 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만큼만 앞으로 나아가라, 그 곳에 이르면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처럼, 한 발씩 걷다 보니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걷고 계신 길에 이 수기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뜻을 품고 이 길을 걷는 모든 분들께 성장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